

선진유럽 낙농에서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었던 시간

강미경 _ 경기 파주 해진목장



먼길, 유럽. 낙농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보고 싶었던 곳이다.

프랑스, 독일 그 꿈에 그리던 유럽 선진 낙농산업현장을 직접 보고 듣고 할 기회를 만들어 주어서 고마움을 느낀다.

유럽의 넓은 초지를 보고 부러움은 있었지만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낙농의 미래 또한 유럽못지않게 자부심을 갖고 나름대로 후계자(아들)와 함께 준비하며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낙농가가 갈수록 늘어나는 실정에 후계자들에게 선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교육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프랑스의 퐁지밀르의 한 목장은 치즈를 직접 만들어 판매까지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시스템을 배우고 앞으로 우리목장의 미래를 보고 싶었다. 또한 목장의 자녀들이 우사 밥통을 놀이터 삼아 벗짚도 삼으로 쓸어주고 노는 자연스러움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프랑스의 농협회의소 방문 설명회는 낙농인들 간의 정보를 서로 통할수 있어 여러 작은 단체들이 협동심을 가질수 있게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와 전문가의 자문을 갖게 하는 것이 좋았다.

우리나라도 이제 HACCP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위생이나 환경에 있어서 철저히 하고 있다. 한가지, 여성낙농인의 목장경영 기록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인에게 의뢰를 해서 목장인은 목장일에 전념할 수 있게 하며 기록이나 서류작성 등은 전문인이 따로 있다는 것이 부러웠다. 우리도 앞으로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또한 소의 전염병(브루셀라)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이들은 차후 해결 방법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는 점은 우



프랑스의 방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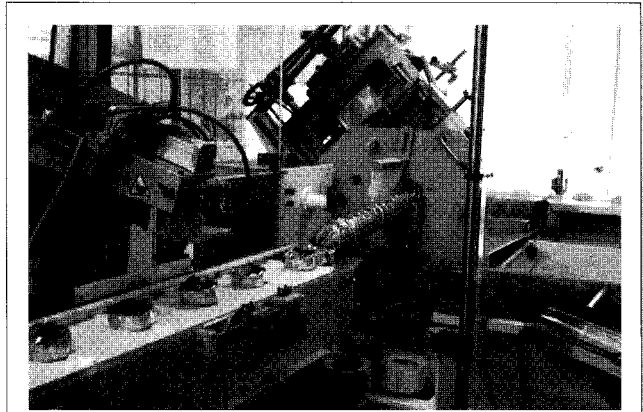


리가 배워야할 시스템 중 하나다. 프랑스는 목장운동을 함에 있어 목장주가 목장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보 전문인을 양성하고 회계와 기록 경영일지 등을 할 수 있는 전문인을 고용하도록 정부가 지원해 준다는 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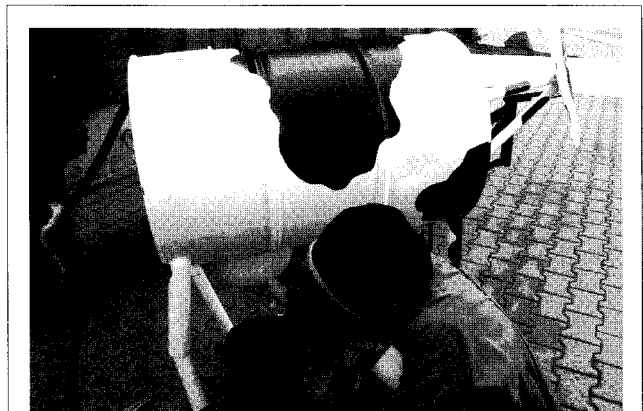
독일의 치즈공장은 한 지역의 단합으로 한 지역의 낙농가가 근처의 가까운 치즈공장을 운영해 높은 유대가격을 받아 목장의 경영을 효율화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부러웠다.

독일 체험농장 방문 또한 젓소 모형을 만들어 아이들이 직접 손으로 만지며 젓을 짜는 체험을 하게 하는 것 또한 스스로 체험장에 나와 청소와 체험장 관리를 하는 것이 아이들의 실질 교육이 잘 이루어 지는 것 같아 보기 좋았다. 이 또한 운영자가 마음을 비우고 사랑과 정성과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 마음에 와 닿았다.

독일의 헷센주 농가 방문은 많은 여운이 남는 곳이다. 목장의 건축물을 원목으로 하여 통풍이 잘되게 미닫이 문이 되어있어 원하는 방향대로 조절할수 있다는 것이 좋았다. 이 목장의 특징은 바이오가스 처리 시설로 전기를 만들면 정부가 이 전기를 전량 구매해 농가 소득에 막대한 이윤을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설을 우리나라 목장들에도 설치하여 목장 운영에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목장의 경영 발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



치즈제품이 포장되고 있다.



착유체험 젓소 모형